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사야 39:1-8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20 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해 19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들이었지만 남유다는 믿음이 좋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왕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있었지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 병을 고침받게 되고 생명도 연장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게 되자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사 39:1)

유다와 바벨론은 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사신들을 보내어 축하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그 중한 병이 낫게 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축하를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하면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분명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고, 바벨론 왕은 그 힘의 원천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이렇게 멀리까지 알려지고, 또 그 먼 길을 찾아온 사신들을 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사 39:2)

사실 히스기야는 강대국인 바벨론이 자신들을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유다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의 국가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히스기야의 속내에는 자신들이 결코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나라가 아니며,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또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자금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이나 외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들의 신앙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며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감히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앗수르의 군대 18 만 5 천이 전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생각하기를, ‘유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이 나라를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겠구나’라며 유다를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큰 예배당입니까? 많은 교인이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은 많은 재정이나 화려한 사역들이 자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 닮은 신실한 제자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한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며,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그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영성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 그 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사 39:3-4)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 39:5-7)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재물과 능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기워지고 유다의 왕자가 포로로 잡혀 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21 장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므낫세 재임 기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므낫세의 55년 재임 기간은 유다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이방 산당들을 다시 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앞 마당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처형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히스기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사야가 경고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모세처럼 기도했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출 32:31-32)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야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해서 이런 성취를 자랑하면 그것은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둘째, 기도는 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치료되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가득했지만, 그에게 기도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건이 중요합니다.

아사, 여호사밋, 웃시아,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말년에는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경건은, 거룩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 4:5)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혹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2.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3.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어떻게 거룩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